

공정출력용문

서울 행정 법 원

제 2 부

결 정

사 건 2018아12792 집행정지

신 청 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

충주시 예성로 114(용산동)

공동대표이사 박성덕, 정준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

담당변호사 이승기, 박찬근, 이유진, 박은정

피 신 청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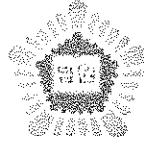
소송수행자 한지현, 허은영, 윤상화

주 문

1. 피신청인이 2018. 9. 5.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및 별지 제2항 기재 방송송출기간 제한 및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873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.
2.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.

신 청 취 지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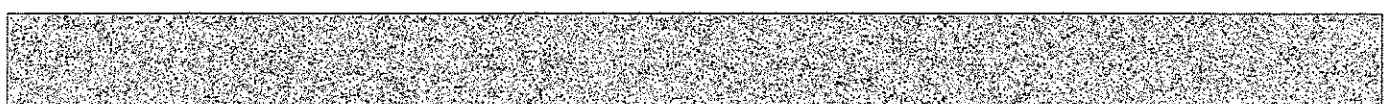
피신청인이 2018. 9. 5.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및 별지 제2항 기재 방송송출기간 제한 및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873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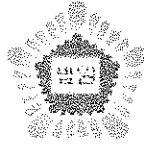
이 유

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,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,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,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.

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10. 4.





재판장

판사

윤경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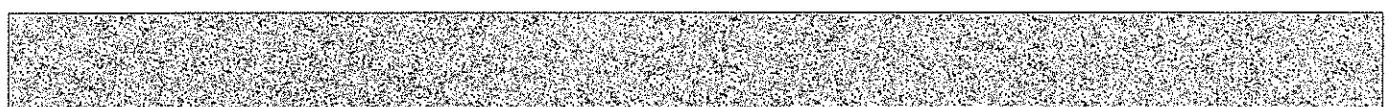
판사

강동훈



판사

김주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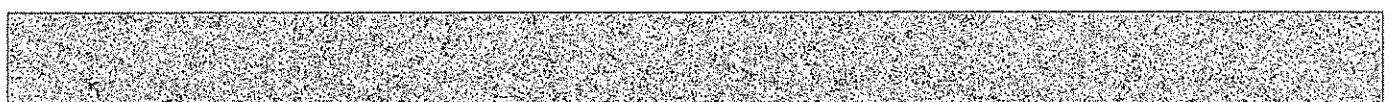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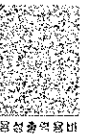
문화체육관광부

[별지]

이 사건 처분 내용

1. 신청인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를 거부한다.
2. 재허가 거부 통보와 관련하여, 다음 사항을 이행하라
 - 가. 2019. 9. 4.까지 방송 연장(다만,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사업자가 방송을 개시하는 경우 방송을 중단하여야 함)
 - 나. 가입자에 대한 고지
가입자들에게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,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제출
 - 다. 방송연장명령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1개월 이내 제출. 끝.





문서출력용바코드

정본입니다.

2018. 10. 4.

서울행정법원

법원주사보 김한복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